

대한민국 신성장축 ‘남해안 시대’ 본격 개막

‘제1회 남해안 상생발전협’ 출범
관광·문화 등 동반성장 견인
7개 공동협력과제 논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국가균형발전 촉구 성명도

■상생발전협 7개 공동협력과제

-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
- 경전선(부산~목포) 고속화 추진
- 남해안 관광도로 건설
- 남해안권 국제요트대회 성공 개최
- 남해안 상생발전 항만물류도시협의체 구성
- 남해안권 기후위기 대응 공동협의체 구성
- 국가균형발전 위한 남해안권 공동 대응



김경수 경남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왼쪽부터)이 지난달 31일 오후 부산 누리마루에서 열린 제1회 남해안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과 균형 발전을 이끌 ‘남해안 시대’가 본격 개막했다. 지난달 31일 부산시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남해안권 3개 시도를 대표해 김영록 전남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남해안 상생발전협의회’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한 ‘남해안 상생발전협의회’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신 남해안 시대’를 열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지난 2018년 12월 전남·부산·경남 남해안권 3개 시도가 광양에서 ‘남해안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한 이후, 1년 7개월간 논의 끝에 일궈낸 값진 결실이다. 이 자리에서 남해안권 3개 시도는 ▲남

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 ▲경전선(부산~목포) 고속화 추진 ▲남해안 관광도로 건설 ▲남해안권 국제요트대회 성공 개최 ▲남해안 상생발전 항만물류도시협의체 구성 ▲남해안권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위기 대응 공동협의체 구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남해안권 공동 대응 등 관광·문화·교통·물류 분야에서 남해안의 동반성장을 견인할 7개 공동협력과제를 논의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담보하기 위한 ‘남해안 상생발전협약’ 서명식을 가졌다. 특히 가속화된 수도권 집중에 대응해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촉구하는 ‘남해안 상생발전협의회 공동성명서’를 발표해 의미를 더했다.

3개 시도는 공동성명을 통해 수도권 집중 현상의 고착화를 야기할 ‘수도권 유턴기업 규제완화 중단’과 지역 간 격차를 고려해 공공기관의 투자·출연기관 및 금융기관까지 확대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비수도권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뉴딜사업’과 ‘조광역 협력프로젝트’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남해안 상생발전협의회 출범식은 세계를 향해 웅비하는 남해안 시대의 힘찬 첫 걸음을 내딛는 역사적인 자리다”며 “남해안의 발전은 수도권에 편중된 국토구조를 아시아 태평양 시대로 주도할 남해안권 광역경제권으로 재편하는 국가균형발전의 모멘텀으로서, 오늘 논

의한 공동협력과제들을 국가프로젝트화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수도권에 대응해 비수도권의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최근 정부에서 본격화하고 있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3개 시도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8월 부산·경남과 함께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구축을 정부에 공동 건의해 국가 주도 아래 3개 시도의 내륙·해양관광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현재 정부에서 진행 중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영광 대마전기차산단 추가 조성

e-모빌리티 연구기관 등 21만3000㎡ 2022년 착공

전남도가 영광 대마전기차동차산업단지에 연구기관과 교육시설, 체험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21만3000㎡의 배후단지를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조성된 대마전기차동차산업단지에 e-모빌리티 관련 기업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현재 81.5%가 분양됐으며, 오는 2021년 상반기 중 분양률 10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영광군은 e-모빌리티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교육·체험시설 등 집적화된 배후단지 조성이 필요하

다고 보고, 지난 5월 국토교통부에 산단 추가지정을 건의해 최근 중앙산업단지 심의위 통과를 이끌어냈다. 전남도는 이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영광군은 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을 수립해 오는 2022년 배후단지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배후단지 사업은 영광군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시행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전남도의 블루이코노미 산업의 하나인 e-모빌리티 관련 기업이 유치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광주시, 산단 내 오·폐수처리 지원조례 제정

신규 입주기업 사용료 일부지원 부담완화 기대

빛그린산단 등 광주시역 3개 신규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광주시는 산업단지 내 오·폐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폐수처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광주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를 제정하고 3일 공포한다고 2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사업자의 오·폐수 배수설비 설치 및 관리기준, 처리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 등 부담기준, 운영위탁 관리 등이다. 이번 조례는 산업단지 운영 초기 입주업체가 적어 폐수물량 부족과 주거지역의 생활하수처리비용이 현실화되지 않고,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적자가 예상되자 입주업체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가 제정되면서 광주시는 사용료의

일부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공공폐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은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깨끗하게 처리해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기 위한 산업단지 기반조성사업이다. 현재 광주시는 ▲빛그린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1단계 총 사업비 154억원, 처리용량 2000t/일) ▲평동3차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1단계 총사업비 120억원, 처리용량 550t/일) ▲도시첨단·에너지밸리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1단계 총사업비 144억원, 처리용량 1000t/일) 등 3곳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빛그린산단과 평동3차산단의 공정률은 약 82%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 남구에 조성하고 있는 도시첨단·에너지밸리산단은 실시설계 단계로 올해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AI 기반 조성 유치 기업 3곳과 협약

바이스·샌드글래스·파크에이아이...총 25개 기업

인공지능(AI) 관련 기업들의 광주행이 잇따르고 있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31일 광주시청에서 인공지능 관련 기업 바이스·샌드글래스·파크에이아이와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이날 이들 기업과 업무협약을 포함해 현재까지 인공지능 관련 기업 25개를

유치하는 등 광주형 인공지능 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다. 광주시와 이날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이스는 빅데이터 분석, 모바일앱·웹 개발 등의 전문 기업이다. 샌드글래스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번역 프로그램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파크에이아이는 자율 주행·스마트 주차

시스템 개발, 인공지능 산업용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분사 이전, 법인·지역사무소 설립을 통해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용섭 시장은 “AI 중심도시 광주에 대한민국의 뉴딜정책의 핵심적인 동력 역할을 할 것이다”며 “광주 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하고 다양한 AI 기업을 유치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남소방본부 슬로건 ‘명예·신뢰·현신 전남소방’

전남소방본부가 슬로건을 ‘명예·신뢰·현신 전남소방’으로 정했다. 전남소방본부는 2일 “선정된 슬로건은 소방정신인 명예·신뢰·현신이 담겼으며 캘리그래피 서체를 활용한 디자인으로 활력이 넘치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더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국민에게 더욱 현신하고 신뢰 받는 명예로운 전남소방이 되고자 하는 4000여 전남소방인의 굳은 다짐을 표현해 관심을 끌었다. /윤현석 기자 chadol@

광주 무인공영자전거 ‘타랑게’ 운영 재개

오늘부터...기존 회원 16일까지·신규 2주간 무료

광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운영을 잠정 중단했던 무인 공영자전거 ‘타랑게’의 운영을 3일 오전 7시부터 재개한다고 2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지난날 9일부터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 광주시는 아직 생소한 타랑게를 많은 시민이 이용하도록 오는 15일까지 신규 회원들에게 가입한 날부터 2주간 무료 이용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존 회원들도 3일부터 16일까지 무료

이용할 수 있다. 자전거는 상무지구 거점 52곳에 200대가 배치됐다. 만 15세 이상이면 누구나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연중무휴 이용할 수 있다. 홈페이지(<http://tarangge.gwangju.go.kr>)와 타랑게 앱(안드로이드, IOS)을 통해 1일권(1000원), 7일권(2500원), 1개월권(5000원), 6개월권(2만원), 1년권(3만원) 등을 구매해서 이용하면 된다. /최권일 기자 cki@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